

상습 성추행 의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제명'

중구의회, 19일 본회의 열고 10명 중 9명 제명 찬성... 중구의회 첫 제명 불명예



동료 여성의원 상습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1991년 4월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인기 도중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제220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2/3 이상(8명 이상)의 찬성으로 박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다.

재적의원 12명 가운데 당사자인 박 의원과 출석정지 60일 징계 중인 장옥진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투표를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1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짝을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역시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바 있다.

당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하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대전 중구의회는 이날 사과문에서 "성추행 당사자인 박찬근 의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안을 19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명으로 가결처리 했다"면서 "최근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관련법규와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지난 4월 17일에 전체의원들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러 "앞으로 중구의회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실천하고, 11월에 하반기 정례회 대비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지역 여성단체와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직자들은 중구의회 본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박 의원의 사퇴 및 제명을 강력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그동안 박찬근 의원을 방치, 사실상 비호한 민주당 공범으로 인식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중구의원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작년 8월 박찬근 의원이 처음 성추행을 자행한 직후, 중구의회에서 달랑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유급휴가와 같은 바주기 징계를 해 박찬근 의원이 재차 성추행 하도록 방조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중구의회 제명 처분과는 별도로 박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꿈나무장학회, 세종도담중과 장학체결식 맺어
꿈나무장학회(회장 유미자)는 6월19일 세종 도담중학교(교장 우준식)와 장학체결식을 맺었다. 우준식 교장선생님의 환영사에서 꿈나무장학회는 곧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랑이라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꿈나무장학회(김봉식 회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장학체결식에서 김봉식회원(구보설비 대표)은 학교측에 감사드린다고하며 훌륭한 인재는 스승을 잘 만나야 꿈이 이루어지는도 도담중학교의 모든선생님들의 제자사랑이 가슴벅차다고 답사를 했다. 이날 참석한 임창빈회원(다우건설 이사)은 이런 아름다운 학교에서 꿈을 펼칠수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친구들과 잘어울리는것도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격려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오서윤학생은 더욱 학교생활을 잘하며 공부도 열심히해 장학금 받은 모범적인 학생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별히 교장선생님께서 직접만든 소품(통소)을 장학회에 기증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장학체결식이었다.

올 장마 7월 초부터... 평년보다 늦어져

기상청이 장마 시작이 평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원인을 발표했다. 한반도 부근 상층에 분포한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장마전선 북상이 저지됐기 때문이다. 7월 초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6월 초반부터 최근까지 베링해 부근 상층에 기압능(기압이 높은 곳)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부근 상층에는 기압골(기압이 낮은 곳)이 위치했다. 이로 인해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돼 장마전선의 북상이 저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베링해 부근 상층 기압능이 발달한 원인은 이 지역 해빙면적이 평년 보다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베링해 부근에 위치한 기압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원활해지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약해지면서 남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할 전망이다. 또한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26-27일), 중국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도 남쪽면 바다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장마는 7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장마전선은 다시 제주도남쪽 면 바다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돼, 중부지방과 그 밖의 남부지방 장마는 7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오는 26-27일쯤 예상되는 장마전선의 북상 정도는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위치와 필리핀 부근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에 의해 매우 유동적"이라며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해 북상할 경우, 장마전선도 함께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예보를 적극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대전경찰청 · 대전시 '응급실 폭력추방' 합동 선포식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공동으로 19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 3층에서 '응급실 폭력추방 선포식'을 갖고, 폭력 없는 응급실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선포식은 대전경찰청과 대전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대전시 소방본부, 대전시 의사회, 대전·세종·충남 병원협의회, 시민단체 등 300여명의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여 기관·단체 공동으로 "폭력 없는 응급실 만들기" 추진합의문 체결과 결의문 제창, 선포식 퍼포먼스를 비롯해 응급의료지원센터장의 비전 및 로드맵 발표와 대전경찰청 김연수 강력계장의 "응급실 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18년 11월 대전지역 6개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과 병원 응급센터간에 '대전응급실 폭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자폐성 장애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주세요
같이 있는 건 우리의 편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 스스로 자기 방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런 무리없는 편견 대안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김제동 이번엔 세종시 고액강연료 논란

2017년 세종시출범 5주년 행사서 40분 강연에 1500만원 받아



최근 방송인 김제동씨가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세종시가 주최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행사에서 150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방송인 김제동씨가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세종시가 주최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행사에서 150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행사비에 과연 고액 강연이 정말 필요했는지 의문이며 국민이 낸 혈세를 마치 썩듯만 마냥 좌편향적인 정치와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사용해 왔다는 점을 거듭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종시는 적절하지 않은 김제동 고액 강연의 지적에 따른 반성과 함께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외에도 혈세를 낭비한 사례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논산에서 두차례 강연하며 2천6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 대덕구에서 90분 강연에 1천550만원에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취소된 바 있다. 또 2017년 아산시에서 두차례 강연을 하고 2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복기자

당진시의회 최창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강평

행감 지적사항 관련 대책 수립... 체계적 처리계획 수립 당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는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12명 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최창용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급년 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에 관계적으로 답습해 반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학교급식센터 정상화 및 고대부곡지구 지반 침하문제 등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중대하

고도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적이고도 즉각적인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처리계획을 수립 이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 서구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26건 처리



대전 서구의회(의장 김창관)는 19일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석 부의장과 최규 도시건설위원장이 건의안을 조성호 의원과 김신용 도시건설부위원장은 5분 발언을 했다.

김경석 부의장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등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대덕대로 안골네거리부터 과학공원에거리 약

4.5km 구간을 도시철도 2호선이 경유하도록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대덕대로) 변경'건의안을 대전시장에게 대표 발의했다. 최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안골네거리에서 도마동 방향 길은 오르막길로 운전차량들이 과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언덕에는 내동중학교가 위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동중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건의안을 대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대표 발의했다. 조성호 의원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자생단체 수가 보통 10개 이상에서 많게는 16~17개에 이르며, 회원들이 주로 직장인이다 보니 회의가 야간에 이루어져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전업을 수행해야 하고, 자생단체간 추진하는 일이 방법활동, 환경정비 등 비슷한

고 자생단체 회원 간 중복가입도 있어 단체구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연의 임무를 살리지 못하는 자생단체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활발하게 운영하는 자생단체는 키워갈 것을 서구청장에게 건의했다. 김신용 도시건설부위원장은 서구청장에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임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강조했다. 서구 인구와 48만 명중에 청년 인구가 1/3이며 관련 예산이 2억 3200만 원이 사용되며 향후 관련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긴 호흡으로 판단해 볼 때 전담 공무원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날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는 30여명의 청년들이 방청을 하여 김신용 의원의 5분 발언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김정환기자

강훈식 의원 '5G시대 게임산업육성' 토론회 개최

게임산업의 육성과 미래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



주도할 수 있는 발전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이 새로운 틀, 새로운 게임산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하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제를 시작으로, KT 김해주 상무의 '5G 기반의 Contents 전략은?' 주제로 5G시대의 변화에 맞는 콘텐츠 전략을 고민하고 다가올 디지털 트윈시대에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의 '플랫폼 시대의 게임콘텐츠 발전 방향에 대해 소셜 임팩트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일 본부장이 '글로벌 게임센터 중심의 지역 게임산업 진흥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인재양성, 인프라확충,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진흥전략을 소개했다. 강민식 남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한범 스키일케이티실장, 정우재 한국VRAR산업협회사

무국장, 장현영 NC소프트실장, 정석희 게임개발자협회장이 무대에 올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위원인 "이웃 중국 게임산업의 급성장과 WHO의 질병코드 도입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게임산업에 있어, 초고속 초연결 네트워크 5G 기술은 우리가 세계 시장을 다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은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보다 더 규모가 크고 유망한 산업이 게임산업"이라고 전제하고, "5G와 게임산업을 통해 바야흐로 '콘텐츠 코리아 전성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JP 의정활동 기록물 · 도서

일체 국회도서관에 기증된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의 정치인생을 담은 의정활동 기록물과 도서 일체가 국회도서관에 영구 보존되며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된다.

국회도서관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오는 23일 김 전 총리의 1주기를 앞두고 장녀 김예리 여사와 기증협약 서명식을 체결하고, 김 전 총리가 남긴 도서 및 기록물 일체를 기증받았다.

김예리 여사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평생동안 모아온 책과 정치활동 기록물이 국회도서관에 영구적으로 보존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정진석 국회의원,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 유운영 전 자민련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국회도서관은 향후 김 전 총리의 장서와 기록물을 차례로 인수받아 분류 및 목록화 작업 등을 거친 뒤, 올 하반기에 '김종필 전 총리 기증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고, 누구나 손쉽게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국회전자도서관 등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규정에는 30여명의 청년들이 방청을 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와 의회정치사 연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김성구기자

공주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2019년 공주시 행정사무감사를 9일만에 걸쳐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후, 공주시로부터 300여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휴일까지 탄원하고 의원사무실에 출근해 면밀히 검토·분석하며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장전반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관계부서의 법령과 조례를 정독하며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으며, 민권위탁사무 2개 단체까지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잘못된 부분과 관행에 대해 개선요구와 함께 대안제시 등 보다 발전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회기 마지막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9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시정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과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대상자를 결정하고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141건, 복지환경위원회 154건, 건설도시위원회 112건 등 모두 407건의 자료를 시정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그동안 의욕적으로 감사를 준비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별로 28일까지 행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달 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함께 2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할 예정이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경찰청 개청 환영"

서금택 <사진> 세종시의회 의장은 25일에 신설되는 세종지방경찰청의 개청을 33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19일 인사말에서 "그 동안 세종시는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독자적인 치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 신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세종시는 지방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대상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도 그간 충남지방

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다 보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지방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경무과·생활안전수사과·경비교통과·정보정보안과 등 5과 체제로 운영되고 신하에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기동중대, 세종경찰서 등을 두게 된다"면서 "지방청 중심의 생활안전 등 전문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교통순찰팀을 두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사

비스의 품질이 한층 높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 의장은 "세종지방경찰청 신설로 세종시의 품격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세종시에 대한 치안서비스 향상과 본격적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세종지방경찰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 동구의회 '추부바나눔 광산 채굴' 반대

금산군의회와 공동대응 위한 협약체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니영)는 19일 의장 접견실에서 금산군의회(의장 김중학)와 '금산군 광산개발 채굴계획인기'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금산군의회 김중학 의장과 6명의 의원은 이날 이날 의장을 방문 자리에서 금산군 추부면 일원 바나눔 광산개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채굴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니영 의장은 "바나눔 채광시에 대청호 식수원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등 주민들에게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지역의 환경과 쾌적한 주민 삶의 질 보전을 위해 금산군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나눔 광산개발 채굴건은 지난 4월 금산군 추부면 신흥리 일원 6천 76㎡ 면적 대상으로 충남도에 인가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오는 6월까지 처리시한을 앞두고 있다. 김정환기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제5차 임시회 상정

충남도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비 편성목에 의회공청회비 및 토론회비(205-12)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상정했다. 18일 제주 마중골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한 임시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공청회, 토론회는 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의원 개인의 공청회, 토론회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전담 보조관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례

입법, 정책대안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물론, 각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드려야 하는 의원 본연의 시대적 사명도 함께 지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비용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도시 지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윤일규 의원 '천인이 커뮤니티케어 선두주자 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위원장 윤일규 국회의원이 <천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도시 지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천안 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린다. 토론회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 천안 지역사회 통합돌

봄 출범식 또한 예정되어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위원장 윤일규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천안시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결과 천안시는 노인 분야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본 토론회는 천안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국회=김성구기자

법동 A아파트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두고 ‘시끌’

건물주 “구에서 허가 법대로 설치” · 입주민 측 “주민들 동의없는 설치 반대”



▲ 최근 대전 대덕구 법동 A아파트 단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을 두고 입주민과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심하다.

최근 대덕구 법동 A아파트 단지내 노인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둘러싼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주인이 건물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행위신고 용도변경을 구에 신청했고 구는 곧바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증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곳으로, 운영자가 일정 설비를 갖춰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입주민 동의없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결사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이해하나 왜 아파트단지 내 정중

앙 건물에 들어서느냐는 점이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는 이곳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주 길목이라서 자칫 일부 환자들의 돌발행동 즉 치매 환자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또 입주민들은 “노인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건물주나 구 관계자가 주민들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며 “입주민들과 소통하

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대덕구 행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건축과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입주민들과 건물주 등 양쪽 관계자들이 만나 원만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는 줄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관련 시설 허가를 둘러싼 비수익 문제가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복합주민공동시설 통합설계로 공동체 문화 확산

행복청, 통합설계로 예산절감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학교 시설 등이 통합 설계 · 건립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복합시설 건립 시 유·초·중·고등학교와 공원을 인근에 배치하는 통합설계를 향후 건립되는 복합시설 전체에 적용한다고 6월 19일(수) 밝혔다.

그 동안은 행정 · 복지 · 체육 · 문화시설 등을 한 건물에 복합화하는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이들을 따로 건립하였을 때와 비

교하여 예산 절감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아 왔으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유치원 · 초·중·고교 시 도움을 주는 학부모나 어르신들이 여유 시간에 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복합시설과 학교 등을 통합 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작년부터

해밀리(6-4생활권) 복합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통합설계를 하여 올해 6월에 착공하고, 향후 건립되는 합강리(5-1생활권), 산울리(6-3생활권) 등 남은 6개 생활권 전체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밀리 복합시설은 ‘숲속의 숲’을 개념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공원 등을 인근에 배치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복합시설 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공암벽장, 달리기 원형 주로를 설치하고 도서관에는 계단식 열람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통합설계는 학생과 학부모 등 주민들의 복합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학생들과 주민 ·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상호 존중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 지고 중복설계가 없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권상대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복합시설 통합설계가 공동체 문화형성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만큼, 다른 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 기자

공주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시동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12명에 위촉장 수여



공주시시장 김정섭은 지난 18일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지향상을 위해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청년정책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착수보고회와 집의응답 순으로 진행했

다.

연구용역은 제안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지역 청년들의 생활 실태조사와 분야별 소그룹 면접 실시, 국내외 청년정책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주시 청년정책 현황과 여건분석, 기본방향과 비전 제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착수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출범한 공주시 청년정책 위원회 12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전달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정책사업의 조정과 협력 등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청년정책 위원회의 출범과 연구용역을 계기로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청년들과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적인 공주형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 기자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 음식점 50개소 특별점검

예산군은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출렁다리 주변(대흥면, 응봉면, 광시면 일대) 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출렁다리 주변 음식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음식점의 위생상태 및 손님 응대 친절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공무원 2인 1개소 15개 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에 직접 손님으로 방문해 대표 음식을 시식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손님응대 친절여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메뉴 고유의 맛과 품질 여부, 영업장의 위생상태 등 4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점검결과 손님응대나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업소는 추후 2차 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성구기자



“대전시청역으로 첨단가상스포츠 체험하러 오세요”

시, 도시철도 대전시청역서 첨단가상스포츠 체험홍보관 오픈

대전시는 지역 첨단스포츠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도시철도공사와 함께 대전시청역사 내에 체험홍보관을 설치하고 19일 오전 10시 오픈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픈행사는 개회식, 테이퍼프팅에 이어 체험홍보관에 설치된 스크린 배드민턴과 스크린 클라이밍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지역 스포츠산업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쥬티엘인더스트리(대표 김창식)가 운영하는 배드민턴 체험관에서는 셔틀콕 발사가 코트 전 · 후방, 좌우측 등 9가지 방향에서 셔틀콕을 발사하고, 스크린을 통해 헤어핀, 스매시, 드라이브, 드롭샷 같은 배드

민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셔틀콕 발사 방향과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 이용자별 맞춤형 연습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와의 대결, 각종 미니게임으로 흥미를 더한다.

쥬티클라이밍(대표 성광제)이 운영하는 클라이밍 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암벽 등반 환경에 가상으로 생성된 정보를 혼합하여 이용자에게 생생한 광경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모션 센서 및 위치정보기술, 인공지능장치기술 등을 기반으로 날씨 · 기온 · 풍향 · 풍속 · 산의 고저 등을 적용, 게임 형식을 통해 암벽등반을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다.

이번 체험관 구축으로 대전시는 전통적인 스포츠산업에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과의 융합을 통한 첨단가상 실감스포츠분야를 시민들과 바이어들에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체험홍보관 운영이 지역 내 첨단스포츠산업 기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한 실감스포츠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 첨단스포츠 기술을 적극 홍보해 첨단스포츠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험홍보관은 대전시청역 대합실에서 올 12월까지 운영되며, 일반시민 누구나 스크린 배드민턴과 스크린 클라이밍을 체험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국립 한밭대, 2019학년도 제1회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여러 계층 동문들 의견 수렴하고 대학운영에 반영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지난 18일 유성구 호텔인터시티 토라즈홀에서 대외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최병욱 위원장과 설동호 고문, 송명기, 박용웅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연태 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욱 위원장은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을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며 “운영방안이나 쓴 소리도 좋으니 거리낌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제시된 의견으로는 교수 역량 강화와 교직원과 학생들의 통행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대교차로 건설방식에 적극적인 대학의견 제시, 취 · 창업 등 후배들의 진로에 대한 도움, 대학발전기금 조성

참여 등이 있었다.

한편, 한밭대학교 대외협력위원회는 대학발전을 위한 자문과 대외기관 · 단체와의 협력사항, 대학발전기금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협의체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최병욱 총장 취임 후 출신학과, 연방대를 고루 안배하여 역대총장을 고문으로 하고 총 26명의 동문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김정환 기자



충남 교육 · 연구 8개 기관 ‘공동협력과 상생발전 협약’ 체결

교육훈련과 연구 분야 상호 협력과 발전 도모

공주시에 위치한 충남 교육 연구 8개 기관장은 지난 18일 충남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공동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교육훈련 · 연구, 시설 운영에 있어 공동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충남 교육 · 연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

교육훈련 · 연구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 △우수선진 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공동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훈련 · 연구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 △우수선진 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공동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8개 기관(충남교육청교육연구원, 충남공무원교육원, 충남교통연수원,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교육청의국어교육원,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은 협약 내용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과 도민들의 다양한 교육복지 증진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 특 ● 정 ●

2019 학교 감염병 대응 연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20일 오후 2시 대전 교육 과학 연구원에서 열리는 2019년도 학교 감염병 대응 연수에 참석.

최고위과정 수료식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20일 오후 7시 유성컨벤션웨딩에서 열리는 대전·세종·부동산 자산관리 최고위과정 수료식에 참석.

상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20일 오전 11시 30분 구청장 접견실에서 환경관리원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오후 2시 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동구청년지원협의회 위촉식 개최.

제69주년 참전유공자 위로연



박용갑 중구청장=20일 오전 11시 문화동 BMK웨딩홀에서 열리는 '6.25전쟁 제69주년 참전유공자 위로연' 참석.

큰마음어린이도서관 개관식



장종태 서구청장=20일 오후 3시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큰마음어린이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유통활성화거리 캠페인



박정현 대덕구청장=20일 오전 8시부터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에서 주민홍보단과 함께 대덕로유통유통활성화거리 캠페인을 한다.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대전시는 오는 28일 시청에서 의료분쟁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의학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은 5개구 보건소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의료분쟁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탓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하고 의료분쟁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앙재원에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전시는 이번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전시에 관해서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통해 의학지식 부족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청 혁신 "우리가 책임집니다"

주니어보드 발대식,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 위한 직원 소통창구 역할

대전시청의 혁신을 책임질 '대전시 주니어보드'가 19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 주니어보드는 대전시청의 혁신적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를 시청에 반영하기 위해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통창구다.

주니어보드는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별·직급·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시청 소속 6급 이하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균연령은 만 33세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자기소개 및 포부발표,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주니어보드 위원들은 포부발표

와 대화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조직문화, 인사·복무제도, 시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자치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아쉬움과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간에 격 없는 소통을 강조했다. 대전시 주니어보드는 시청 주

요정책·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조직문화·인사·복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직원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된다. 이를 위해 확대간부회의·주간업무회의 참석, 아이디어 제안 보고회, 간부공무원과의 소통간담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자체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세부운영은 주니어보드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고, 국외정책연수·특별휴가·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청은 자치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청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의 시정혁신을 위해 여러분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태선 기자



"단장마친 석교동으로 놀러오세요"

지역 6개 공공기관연합 봉사활동으로 화단과 침의자 설치마쳐

대전 중구 석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봉사로 플랜트박스 화단과 침의자 설치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지원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전

원자력연료(주)로 구성된 '퍼블리코대전'의 지역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봉사로 상승쓰레기 투기 지역이었던 모임로 외 4개소에 40개의 플랜트박스로 된 화단이 조성됐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석

교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모임로 외 4곳에 침의자 17개도 마련됐다. 긴 끝목을 쉽게 걸어가기 힘들었던 노인들은 의자 설치를 반겼다. 김태수 동장은 "참여해주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전하고, 시설물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위생교육 실시

축산물 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 200여 명 대상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와 (사)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지회장 송영오)가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축산물 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희정 주무관과 축산기업중앙회 한수현 전무가 강사로 나서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유성구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중 축산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 유통관리와 위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는 연간 6회에 걸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봉관기자

"반려견 동물등록 사진 신고하세요"

7~8월 사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일제 단속 실시

대전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전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시 인척노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서비스업소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한 시민들에게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구보건소 1954년생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연중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장종태)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1954. 12. 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로 전파되며,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고,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렴구균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만으로도 패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1954년생 어르신은 생일에 관계없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한 노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대전시노인복지관-SK이노베이션

'SK1004단 행복나눔' 봉사활동



어르신과 떠나는 북카페여행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유미)는 19일 '100세 인생 우울탈출~행복시작'이라는 주제로 '자아존중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5명의 어르신과 함께 대전 계룡문고 북카페를 찾았다. 이 행사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덕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래동의 특색사업으로 지난 5월 시작해 이번이 5번째 모임이다.

이날 어르신들은 책방과 카페가 어우러져 있는 북카페를 찾아 다양한 책과 함께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며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선기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9일 대회의실에서 동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점차 고도화되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박인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요령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대응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정보 보안에 관해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큰 공감대를 자아냈다.

또한, 구에서는 향후 각 부서 및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실패 점검을 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놓치기 쉽고, 어려워하는 정보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직원들의 보안 의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노인복지관(관장 김인원)과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사장 김준은) 복지관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와 SK이노베이션 봉사자와 함께 'SK1004단 행복나눔 사랑맞이 결연사업 시즌III'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로 구성된 'SK1004단'은 대전시노인복지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말벗서비스, 후원물품전달 등을 펼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대전시노인복지관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회기 진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 말까지 3회 정도 더 진행해 많은 어르신들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18일 두 차례에 걸쳐 61명으로 구성된 SK1004단은 총 26가정을 방문해 독거노인들에게 여름대비용품(선풍기, 여름이불, 삼계탕, 감비탕, 혼합 잡곡, 습기 제거제, 해충제)을 전달하고, 봉사자들이 재능키트를 활용해 재능 기부형식으로 진행했다.

여름 대비용품을 받아 든 대전시 중구에 거주하는 A어르신(76세, 남)은 "올 여름에도 무뎠다는 예보에 무척 걱정스러웠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 주고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줘서 고맙다"며 소감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소외계층인 독거노인을 중점 사회공헌 분야로 선정해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으며, 노인 사회문제에 보다 진정성 있고,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주민생활 혁신사례 응모 지자체 데모데이 행사

중구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의 빈집정비 사업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민생활 혁신사례 응모 지자체 데모데이 행사'에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 이는 지난 달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중구의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이 전국 300개의 사례 중 17개의 최종 우수사례에 선정된 결과다. 빈집정비 사업은 원도심에 방치된 폐·공가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쉼터, 공공용 주차장, 마을 공동 텃밭 등으로 변화시켜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중구는 지금까지 44개의 빈집 정비를 마쳤다. 사업은 범죄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 주민편의 증진 등의 기대를 넘어 주민책임의식과 공동체 강화까지 더 많은 효과를 불러왔다. 박용갑 청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고민하며 어렵게 시작했던 우리의 빈집 정비 사업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모든 원도심에서 공감하는 빈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선 기자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공주시, 열혈청년 통장·복지카드... 청년들의 지역 이탈 방지

공주시(시장 김성섭)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들의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난해 충남도에서 추진한 선행 사업으로 공주시 청년 50여명이 지원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공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고용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 올해 시 자체사업으로 '열혈청년 통장'과 '열혈청년 복지

카드' 등 2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열혈청년 통장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중 공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체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시에서 청년 지원금 260만원을 지원해 총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열혈청년 복지카드는 공주시 거주 만 18~39세 청년 중 공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체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6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월 평균 급여가 250만 원 이상이거나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할 수 없으며, 향락업 및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에 재직하는 청년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7~8월 중 참여자를 집중 모집하고, 9월부터 열혈청년 통장 개설 및 복지

카드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지역경제과(041-840-8306)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체 재직 청년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지역 정책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날로 증가하는 청년 복지정책 확대 요구에 대한 실질적 청년 복지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당진에서 이번 주말 감자 캐고 매실도 따고

제10회 황토감자축제·순성 왕매실 축제 열려

이번 주말인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당진에서 감자도 캐고 매실도 따는 체험이 가능하다.

제10회 하나투 황토감자축제가 22일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제10회 순성 왕매실 축제가 22일과 23일 이틀간 순성면에 위치한 순성 왕매실 영농조합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오감만족 힐링 체험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하나투 황토감자축제에서는 황토감자 캐기 체험과 그림 그리기 대회, 감자요리 경연대회, 가족단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가족 당 참가비 8000원을 내면 10kg 규격 박스에 직접 수확한 황토감자를 가져갈 수 있는 황토감자 캐기 체험은 현재 온라인 접수가 마감돼 축제 당일 현장 접수만 가능한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감자 생산 농가들이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터도 운영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감자를 구매할 수 있으며, 황토감자 외에 지역 농·특산물 경매장도 열릴 예정이다.

순성 왕매실 축제에서도 6000원의 참가비만 있으면 2kg 박스에 직접 따 매실을 가져갈 수 있으며, 관광객 참가자랑과 매실 담금주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편 당진에서는 송악읍과 신평면을 중심으로 200여 농가가 600ha의 면적에서 연간 1만5600톤가량의 하나투 황토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순성 왕매실은 지난 2001년 순성면 남원천 일원에 수해복구를 위해 심은 매실나무가 농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태안군이 충청남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은 충남도의 2018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집계 결과 총 구매물품 83억 원 중 녹색제품 구매금액으로 36억 원을 사용, 충청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환경오염 저감과 에너지 자원 및 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의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환경표지인 증제품·우수재활용(GR)마크인 증제품을 말하며, 건설자재·사무기기·가전제품 등 1만 5500여 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군은 사업집행 시 설계부터 발주까지 다양한 녹색제품을 우선 반영해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환경위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군에서 펼치는 사업 전반에 대해 녹색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해 녹색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환기자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제33회 정기 후원물품 지원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홍원우)는 지난 18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제33회 지역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아인티내셔널(대표 최홍용), 태평양에어콘트를공업(주)(대표 카키시타카즈야), 운주곰탕(대표 김병관), 남신제관(주)(대표 홍원우), (주)전건업(대표 조호준, 이창세) 등 아산시 기업인협의회 회원사들이 참여했

다.

이번 제33회 후원물품은 과자, 라면, 곰탕, 햇반(즉석밥), 두유 등으로 준비됐으며, 방정면·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 아산시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인 협의회 회원들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 지속적인 후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회원사들 사업이 번창해 앞으로도 아산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행복을 나누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물품을 지원해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과 열악한 시설에 적극적인 나눔활동으로 아산시 행복키움지원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백 대전점, 천연소재 모자 멋스럽게 써볼까?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울경) 1층 닥스모자 매장에서 직원이 라피아, 지사, 린넨 등의 천연소재로 만든 다양한 스타일의 범거지 모자를 선보이고 있다. 여름철 야외활동 시 햇빛 차단과 스타일링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천연소재 모자는 가볍고 통풍이 뛰어나 비캄스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롯데백화점 대전점



청양군 표고버섯 여름철 재배관리 교육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18일 청양칠갑산표고생산자협의 회(회장 황인풍) 등 표고버섯 생산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생육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원철 초원버섯연구소장은 '여름철 표고버섯 생육 관리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을 소개해 재배농업인의 반가움을 샀다.

박 소장은 "지난해와 같이 여름철 35℃이상 고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표고버섯 균근이 죽어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도 조절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했다.

박 소장은 고온 시 재배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 고온에 강한 품종 재배, 쿨넛트 및 유동 환기팬 설치, 수막·에어컨·안개분무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놴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은 표고버섯 재배농가에게 제해와 같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농가에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대전투데이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홍도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덕기

대전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영근

농어촌공 조익문 감사, 청렴특강·청렴서약식 행사

충남본부 방문 '청렴토크'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조익문 상인 감사는 지난 19일 충남본부 방문하여 직원들과 고객만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서약식을 실시하고 부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토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필 충남본부장과 관내 지사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충남본부의 고객만족과 청렴도 향상방안을 보고받고 청렴토크를 통해 청렴·윤리 의견을 공유한 후 청렴서약식 행사를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직원들의 청렴윤리의식은 켜고(Turn On), 부정부패는 끄는(Turn Off) 다양한 청렴행사를 통해 본부 내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청렴문화정착을 선도하는 충남지역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익문 감사는 "청렴이 조직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청렴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며, "특히, 청렴윤리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간부직원들의 책임 있는 실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는 "청렴이 조직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청렴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며, "특히, 청렴윤리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간부직원들의 책임 있는 실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신장 연수

대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자치 실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월 19일(수) 14:00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학교 자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과 신규 운영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장 및 올해 신규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올해 총 303개교(초, 중, 고, 특)에 3,260명의 운영위원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와 역할"을 주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제도개선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일정 등으로 이번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운영위원들도 연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와 역할"을 주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제도개선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과 육아 복지혜택 확대 지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육아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중증장애인가정 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 2019. 1. 1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확대 지급키로 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부모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지급되며,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중증장애인가정 육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해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신청방법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 중증장애인가정 육아보조수당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 구드래 일원 발굴조사 착수

9월까지 백제시대 건물지 관련 시설·공간 구조 규명

문화재청은 명승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여 구드래 일원'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이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배)에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부여 구드래는 백제 사비도성의 입항지와 관련된 유적이다. 부여 구드래는 부여 부소산 서쪽 기슭의 백마강가에 있는 나루터 일대를 이르는 지명으로, '대왕나루', '구드래', '구드라'에서 유래했다.



<사진설명> 문화재청 발굴조사대장지 및 부여 구드래 일원전경 [문화재청 제공]

시대 건물지와 빙고(氷庫, 얼음 보관 창고) 유구, 도로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건물지는 1층 2실의 구조로 익산 왕궁리 유적 1호 건물지와 유사한 구조로, 사찰의 강당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빙고는 백제 사비기 빙고와 조선 시대 빙고가 한꺼번에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백제 시대 건물지의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로,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과 공간 구조를 규명하

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구드래 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 발굴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부여 구드래 일원에 대해 고지형 분석을 하여 유적의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사비도성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26개소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백제 사비도성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 왕도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아산농업기술센터, 충남최

초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가 충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 영농현장에서 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의 소형건설기계 사용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부담으로 최근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들의 면허취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결과, 충남도로부터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농업인들이 소형건설기계 교육 수료 시 면허 발급이 가능 해졌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를 활용한 무료교육으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며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아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일정은 9월경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으로 기타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537-3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신바람 정책특토 여성정책 토론회' 27일 개최

여성행복 시책 발굴 위해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공주시(시장 김경섭)가 신바람 정책특토 여덟 번째 순서로, 공주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석광 여성가족과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행복 시책 발굴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와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석 대상은 여성 활동가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단체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토론 주제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다루게 되며, 특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성 평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5대 과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향'이라는 주제 발제에 이어,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평일 오전에 실시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석광 여성가족과장은 "민선7기 공주시정은 여성은 물론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가 함께 행복을 영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 정책 제안 등을 들어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성상범기자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 사용 위한 '물절약 추진계획' 수립

한국수자원공사, 물절약 방법 모색·실천 앞장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물 관리일원화 실행 원년을 맞이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절약 추진계획'을 전사적으로 시행한다.

이전 '물절약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중단 없는 깨끗한 물 공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물절약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앞장서는 취지로 추진됐다.

또한, 물절약 방법으로 전국 사업장 사육 내 수도꼭지 감압과 절수기기 보급을 시행하고 수도꼭지 감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전국 사업장 사육 내 수도꼭지 1,315개소를 대상으로,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소수준으로 수압을 낮춰 기존 대비 최대 30%가량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용 제고와 작년 말 개소한 '물수요 공급 예측센터'를 통한 물수요 및 공급 예측 등 물절약 계획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바탕으로 지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우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물수요 공급 예측센터를 통해 국가 전체 단위부터 지역 단위까지 물수요 및 공급 관련 계획 수립 시 단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물절약 추진계획'으로 2023년까지 팔당댐의 총 저수용량 규모인 2억6천만㎥ 절감을 목표로 물절약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대전시, 인권존중 문화 확산 위한 인권공모전 개최

인권엽서 인권영상 2개 부문, 전국 공모 실시



대전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 대전광역시 인권공모전' (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의 중요성 등을 다룬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분은 인권엽서와 인권영상 2개 부문이며, 인권엽서는 참여자 연령에 따라 초등·청소년·성인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공모전은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작품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작은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2개월간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대전시는 응모작 중 총 2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대상(1점, 150만원), 최우수상(4점, 350만원), 우수상(8점, 400만원), 장려상(8점, 220만원) 등 총 1,1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인권커치 지향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며, 특별한 대접의 특징이 드러나는 작품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10월 11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은 10월 말 2019 시민인권페스티벌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작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서 순회 전시된다.

대전시 이은화 자치분권과장은 "사회적으로 인권이식이가 향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권 주제를 다룬 좋은 작품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인권문화를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인권센터 홈페이지(www.djtr.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선기자

Advertisement for a small construction machinery training course. It features a circular logo with text: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일이 경제해 되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and a phone number '(042)538-3030'.

당진시 노인복지관 시니어 봉사단

노인 자원봉사 사업 상반기 보수교육



당진시 노인복지관(관장 이병하)은 지난 18일 노인 자원봉사 사업 상반기 보수교육을 복지관 3층 동아리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 노인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총 40명을 대상으로 타임 트

레이 만들기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할강화를 지원했다. 상반기 보수교육에 참여한 모회원은 "시니어 봉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시니어 봉사단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철도공단, 철도의 역할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정책세미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윤관석의 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 한국철도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2건의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 시립대학교 박동주 교수는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계층, 지역, 세대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 교통서비스 수준 설정 및 제도개선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백석대경상학부 학생회,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위해 플래시몹 수익금 기부. 지난 6월 14일 백석대학교경상학부 학생회가 플래시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푸른나무청년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기부하여 후원함을 전했다.



아산경찰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개최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19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참여단 등과 함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중구, 공직자 직장교육 실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가치와 정신을 되짚어 보기위해 (사)국학원 교육이사 이병택 강사를 초빙해 '3·1운동 100주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의 주제로 진행했다.



청양소방서, 하반기 긴급대응 협력관 회의 개최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19일 재난대비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공조를 위한 긴급대응 협력관 회의를 개최했다. 청양소방서, 청양군 등 12개 기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온양온천시장전문소대에 기초소방시설 전달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지난 18일, 온양온천시장전문소대의용소방대에 기초소방시설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었다. 전달한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160개 감지기 320개이며 전달의용소방대에 의해 온양온천시장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주소방서 '폭염대응 119구급대' 운영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올 여름 평균기온이 높고, 폭염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관련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폭염대응 119구급대'를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폭염환자 발생을 대비해 119구급차 9대와 펌플런스 5대를 편성해 운영한다.



병부청,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병부청(청장 기찬수)은 19일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거버넌스센터 정재근 원장을 초청,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실천'을 주제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소방본부, 냉방기 화재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흑서기 총 551건 화재발생... 부주의·전기적 요인 1·2위

충남소방본부가 올 여름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흑서기(7월 15일~8월 14일) 중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51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 196건(35.6%) ▲전기적 요인 154건(27.9%) ▲기계적 요인 83건(15.1%) ▲원인미상 62건(11.2%) ▲기타 43건(7.8%) ▲자연적 요인 13건(2.4%) 등의 순이다. 전체 화재발생 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한 만큼, 사전 점검 등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냉방기 화재는 사전 점검 및 청소와 같은 작은 관심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용 후에는 코드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선풍기 모터에 쌓인 분진

이 과열을 가속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할 경우 냉각 장애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냉방기기는 사용 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논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 임신 주부 등이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논산=김성구기자

“경찰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여전히 미흡”

대전·충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변호사 현장 간담회 개최



대전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황윤하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대전청과 충남청 소속 수사부서 경찰관 30여명과 서정만 회장 및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변호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한 변호인 참여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

방청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와도 연락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황윤하 대전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일부 일선 수사관들은 변호인의 참여가 실제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고 변호인 단계에서는 경찰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선 수사관과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서정만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수사경찰과 변호인이 함께 토의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등 가격으로 최매력 광고 게재 드려라,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35-10 대원빌딩 10층
www.daejeontoday.com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모의훈련

당진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모의훈련 실시



당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송악읍 가지시리 기지시절다리기 박물관에서 '2019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당진경찰서가 주관하는 훈련으로, 당진소방서, 1789부대,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화생방 지원대대, 당진종합병원 등 8개 기관 총 110여 명이 참여해, 헬기, 구조공작차, 제독차량 등 17여 대의 훈련장비가 현장에 동원됐다.

한상우 서장은 "생물테러는 감염에 의한 다량의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테러로 발생 시 초기에 감지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테러범의 조기 검거가 필수이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침밥 꼬박꼬박, 제철 과일·채소 많이 먹어요”

세종시, 6월 식생활교육의 달 비른식생활 5대 실천 캠페인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6월 식생활교육의 달 및 식생활교육주간에 맞춰 식생활교육 세종네트워크와 함께 비른식생활 5대 중점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주제별·대상별로 비른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연중 전개한다. 비른식생활 5대 중점 실천사항은 ▲아침밥 먹기·가족밥상의 날 ▲채소·과일 많이 먹기 ▲덧발 가꾸기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

비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말한다. '6월은 식생활교육의 달! 비른식생활 함께 실천해요!'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비른식생활 실천 캠페인은 지난 18일 새롬동 가덕초등학교에서 '과일·채소 많이 먹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21일에는 아름초등학교에서 '아침밥 먹기', 24일에는 화북모 및 시민을 대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덧발 가꾸기',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하기'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시는 찾아가는 비른식생활교육, 농업·농촌 체험연계 식생활교육, 덧발 식생활교육, 고령자 건강밥상 교실 등 건강한 식생활 확산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4일 시교육청 및 수행기관 담당자, 학교 및 어린이집 담당자, 우수농촌체험기관 및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워크숍을 열고 식생활교육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6월 식생활교육의 달과 식생활교육주간을 활용해 시민이 건강한 먹거리, 비른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시 생활체육지도자 응급처치 교육’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및 지식 보급으로 시민 안전의식 향상



대전광역시체육회(회장 허태정)가 대전광역시생활체육지도자 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일반 과정을 집중 교육한다.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6월 19-20일 양일간 대전광역시체육회관에서 진행된다. 총 34명의 대전광역시 관내 생활체육지도자가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대한체육회 이사 대인·세종지사의 윤리영 강사(대덕대학교 겸임교수)의 ▲응급 상황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등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일상 및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과 사고발생시 대처 능력을 배운다. 또한 인명구조와 안전의식을 높여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능력을 배양한다. 대전광역시체육회 박일순 사무총장은 "지도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지도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아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대상으로 단속 나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2019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따른 수

질오염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환경직 공무원 1개반(3명)을 특별감시·단속반으로 구성해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한다. 시는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벌이행 실패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천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주의 당부

평소 벌 쏘임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숙지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이른 더위로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평소 벌 쏘임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벌집은 일반주먹을 비롯해 아파트 배란다는 물론,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벌 쏘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벌에 쏘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벌의 주의할 꿀 수 있는 밝은색상의 옷을 피하고, 자극성 있는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춘 자세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은 신용카드로 긁어 제거하고,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선 냉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통장비 없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합부로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천=김성구기자

교육부, 직업계고 포털 '하이파이브' 개편

학생들이 쉽게 직업계고 관련 정보 찾을 수 있도록 개편

교육부가 특성학교·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정보를 담은 포털 사이트 '하이파이브'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텍스트 위주였던 화면을 인포그래픽 중심으로 바꾸고 메뉴 구성을 바꿔 학생들이 쉽게 직업계고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 2012년 개설된 하이파이브는 2018년 226만부를 기록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활발한 직업계고 포

털이다.

하이파이브는 이번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부터 취업, 후학습까지 시간대 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학교정보 메뉴에서는 직업계고 기본정보와 입학요강 등을 설명하고 '교육지원' 메뉴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산학협력형 도제학교 등 직업계고에서 받게 되는 교육과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또 취업·진로·메뉴를 누르면 고졸 취업 지원 정책과 채용 공고, 직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후학습에는 취업한 졸업생들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후학습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센터'에는 직업계고와 연관된 주요 행사와 교수·학습자료 등을 탑재했다.

한편 교육부는 하이파이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가장 유용한 메뉴 찾기' 행사를 진행한다. 사이트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장 유용한 메뉴를 선정하면 추천을 통해 총 200명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하이파이브가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경로를 설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학교 석면 철거 모니터단 활동 교육

충남교육청, 석면철거 공사의 안전성 확보 위해 모니터단 활동 강화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중 98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를 실시하며, 석면철거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 공사부터 활동을 시작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은 교장 또는 교감, 학부모, 환경단체, 민간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가하며, 공사 관리·감독과 공정 과정이 매뉴얼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공사업체는 모니터단의 승인이 있어야 야간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은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에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할 23개교 학부모, 환경단체, 학교 관계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 활동 교육을 19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모니터단의 교육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화학안전보건협회는 석면에 대한 이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안내했다. 또한 전문가의 모니터단 활용요령과 학교 석면 잔재물 조사 방법에 대한 강의도 이뤄졌다.

김정환기자



태안 방포초, 매실청 담그기 체험 실시 태안 방포초(교장인항자)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교육기부)으로 태안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18일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유치원, 1~2학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실청 담그기 체험을 실시했다.

당진중, 행복 나눔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면천면에 위치한 한빛 공동체 방문 행복 나눔 봉사활동 펼쳐



당진중학교(교장 양낙준) 행복 나눔 가족 봉사단은 지난 1일과 15일 면천면에 위치한 한빛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복 나눔 가족 봉사단은 교사 2명, 학부모 5명, 학생 15명으로 구성되어 가족이 함께 봉사를 실천하는 당진중학교의 봉사 프로그램으로 지난 1일에는 한빛 공동체에 방문해 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과 함께 만들기, 요리, 장기자랑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과 함께 산책 및 직

소퍼를 하기,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청소, 실내 낙엽정소 등의 환경정화 활동, 잔치국수 등을 손수 직접 만들어 제공했고, 노래 및 맨스, 장기자랑 등 함께 오락 활동을 하며 보람찬 봉사활동을 했으며, 온 가족이 함께 봉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봉사활동 담당 교사는 "행복한 나눔은 함께하면 2배, 10배가 된다. 이러한 행복을 느끼게 해 주어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교육청, 공·사립유치원 169억원 지원

2019학년도 2분기 유아학비 지원

대전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이해용)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257개원(공립 99개원, 사립 158개원) 2만 2817명에 2019학년도 2분기 유아학비 1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3.1.1~2016.2.29)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과정을 포함하여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

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포, http://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부교육지원청 조성만 유초등교육과장은 "공·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정책실명제 운영 통해 투명성·책임성 확보

세종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0건 선정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9일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3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국정과제, 50억 이상 사업,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등 주요 정책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날 선정된 사업은 ▲고등학교 학점제 ▲제2특수학교 설립 ▲미세먼지와 석면 없는 학교 ▲세종 자유학기제 운영 등 공약사업과 ▲은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스마트교육 내실화 등 국정과제를 포함해 총 30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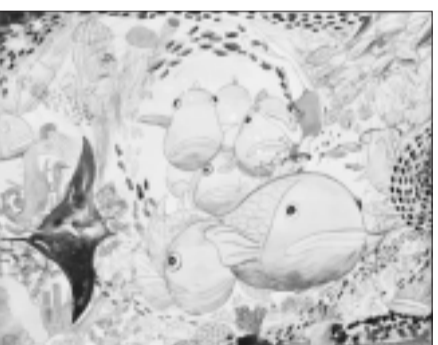
세종시교육청은 선정된 사업을 교육청 누리집(http://www.sjgo.kr)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일 관리를 보장하고 세종교육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홍성여고 1학년 이수민 학생, 교육부장관상

제5회 생명의 바다 전국 학생 그림대회 종합 최우수



홍성여자고등학교(교장 심상룡) 1학년 이수민 학생이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생명의 바다 전국 학생 그림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고등부 교육부장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솔찬공원,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충남 서천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경남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전북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경북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광장 등 전국 9곳에서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약 4500명과 학부모, 교사 등 약 1만 명이 참가해 열렸다.

장관상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및 단체장상 수상자는 93명이며 장려상 336명, 입선 578명 등 전체 수상자는 1007명이다.

대회 심사는 신종식 홍익대 미술대학 원장, 김항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효정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현은영 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박정기 춘천교육대 교수가 맡았다.



대전시노인복지관,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현장견학 대전시노인복지관(관장 김인원)은 지난 14일 대전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원 대전협의회와의 지원으로 전쟁의 상흔을 직접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아산시민포럼 94차 정기포럼 가져

충남 유일 예술의전당 없는 아산에서 문화란



아산시민포럼(상임대표 이건영)이 지난 18일, 배방읍에 위치한 이화피닉스 병원 수목화원에서 포럼 회원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원희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 '문화와 생활'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원희 관장은 "대한민국은 생활이나 기후 여건이 매우 좋은데 불구하고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행복의 기준이 단순 소득 수준이 아닌 창의성, 희생정신, 높은 기술과 도덕적 기준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속 문화 즐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음악감상, 독서, 사진, 악기, 강의듣기, 체험참여, 내집가꾸기 등 간단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아산은 역사적 문화 콘텐츠가 많

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유스호스텔 등이 없고 숙원사업인 운곡박물관도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은 자녀들과 함께 음악과 그림 등을 공유하지 못하는 세대 간 문화 단절에 대해 아쉬움을 이야기하며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길 주문하기도 했다.

이건영 상임대표는 "인구33만의 아산시가 충남15개 시·군중 유일하게 예술의 전당 등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했음에도 우선순위에 밀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역대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수련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청양 청남초, 부여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 실시



청남초등학교(교장 오인규)는 4~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부여군 중화면에 위치한 부여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했다.

청남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6개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소식이 진행되었으며, 충만한 안전교육과 생활인내를 교육받은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했다.

개인 장애물 코스인 '하이코스'와 '질러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

전해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키우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수련활동에 참여한 6개교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장기자랑과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펼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남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호연지기를 함양시키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

2019년도 태안교육지원청 기본방향

1.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2.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3.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4.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5.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우리/동/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에너지센터 개소

당진시,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플랫폼 구축... 본격적 운영 돌입

당진시는 19일 오후 3시 석문면에 위치한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홀에서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하 에너지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국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된 에너지센터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 확대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문화 형성을 위한 창구이자 시의 에너지 정책 확산과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앞으로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자원조사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재생에너지 보급 컨설팅 ▲에너지 효율 확산 ▲에너지 복지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마을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에너지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해 에너지 정책 사업과 서

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에너지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정기 업무협의를 통해 에너지센터의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이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의 에너지센터 운영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현장인 전국의



'안면읍 깔꿈이 청소봉사단' 눈길

태안군, 중증지적장애인 가구 대청소 실시

태안군 '안면읍 깔꿈이 청소봉사단'은 지난 18일 봉사단원 20여 명이 쓰레기 방치로 악취와 곰팡이가 심각한 복지대상자 집을 찾아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실시한 대상자구는 중증지적장애 모자가구로 평소 청소를 하지 않아 집 안바닥이 쓰레기로 뒤덮여 악취가 심해 친인척과 마을 사람들도 발걸음이 끊긴 상태였다.

또한 최근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세면과 설거지, 빨래를 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 생활해왔다.

이에 안면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대청소와 더불어 상수도인입공사를 비롯, 세면장설치·주방리모델링 등 집수리를 지원하고 향후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청소·세탁·식사지원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호일 부단체장(안면읍 주민자치센터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박복남 단원(안면읍새마을지도자회)은 "안면읍 어려운 지역 주민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면읍 깔꿈이 청소봉사단'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가구에 대청소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특화사업으로 월 1회 대상가구를 찾아 집안청소와 세탁, 집 주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한다.

태안=김정한기자

악의적 세금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청양군, 인식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 홍보

청양군(군수 김문곤)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청양군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97명, 1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에 달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체납에 대한 군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기관단체장들 공유·협력 돈보여

화성면, 문화콘텐츠 개발·지역혁신모델사업 추진

청양군 화성면행정복지센터(면장 강선규)는 지난 18일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에서 면내 기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현안을 공유하면서 협력의지를 다졌다.

이날 김중욱 화성면행정복지위원장은 "화성면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념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혁신모델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숙박시설과 직거래매장 건립 등을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임동삼 의용소방대장은 각종 소방시설점검 및 심폐소생교육 등을 전달했고, 송태근 새마을협의회장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과 농약병 등 재활용품 모으기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최광기 이장협의회장은 7월 10일 충청남도 이 통장 한마당대회를 안내했으며, 박미희 화성중학교장은 방역소독활동을 주문했다. 회의 후 기관단체장들은 면내에 소재한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운영협의회로부터 운영상황을 소개받았다.

설명에 따르면, 연간 2만5000여명이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청소년활동사업, 체험연수사업, 군포시민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취학전 어린이 프로그램 '호응'

동화구연·독후활동 만들기·친숙한 도서관 만들기 추진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이해시키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취학전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관내 18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 및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서관 시설 이용교육 및 시설견학 후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에는 4개 동아리 총 19명의 봉사단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으로 ▲그림책을 읽고 종이막대로 두

려려보기 ▲여름 과일을 알아보고 수박 바람개비 만들기 ▲효도에 대해 알아보고 카네이션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독후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립중앙도서관(041-670-59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377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3개 봉사단이 총 18회에 걸쳐 재능나눔 프로그램(동화구연 등)을 진행해 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야생화 재배 전문기술교육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야생화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위한 야생화 재배 전문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의 정연권 강사를 초빙해 아산시 농업인들에게 야생화 재배의 핵심기술, 야생화를 활용한 도시농업분야 적용, 야생화인테리어 연출 등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색향미음(色香味音) 오감동행' 주제로 야생화의 의미와 이해, 야생화분류와 등정, 꽃 색의 신비와 향기 구분방법, 상품화 연출로 교육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관계자는 "야생화재배 전문기술교육으로 야생화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야생화재배 농가들을 위한 교육을 아끼없이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귀농귀촌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당진시, '귀농인의 집' 입주자 이달 28일까지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당진시 정미면 하성리에 조성한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귀농 귀촌 희망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초기에 거주지 확보와 영농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을 위해 조성했다.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면 거주지와 농지 확보 등에 드는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과연 농촌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귀농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한 귀농인의 집에서의 생활은 농촌 마을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적응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귀농인의 집은 도시에서 1년 이상 살았으며, 귀농인의 집에 살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해 현지에 귀농·귀촌할 의사가 있는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보증금 45만 원에 월 15만 원 이하이며, 공공요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센터 전화(052-210-1111)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의 집은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예비귀농인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 감자 캐기 봉사 실시



아산시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회장 김영환)는 6월 18일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하여 감자 캐기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500kg에 달하는 감자를 수확했다. 수확한 감자를 판매한 돈은 관내의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정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환 회장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감자 캐기 봉사

광고문의
(042)538-3030

청양=정성범기자

동정

혁신 대토론회



오세현 아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아산 교육정책 혁신 대토론회에 참석.

행복이카데미



김홍장 당진시장은 20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6월 중 지역 총화회의에 참석,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159회 당진행복이카데미에 참석.

안전교육



가세로 태안군수는 20일 오전 10시 안면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9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에 참석.

개회식



김돈곤 청양군수는 20일 오후 2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 중별 북상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



아산시 세정과

결연마을 과수농가 일손 돕기

아산시 세정과는 지난 17일, 1부서 1촌 자매 결연 마을인 신창면 수장2리이장 박용식을 방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정과 직원 10여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해 복숭아 열매수확 및 봉지 씌우기 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더 많이 애용하겠다"고 말했다.



탕정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심홍섭)는 지난 17일, 국토공원을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도로변 3개소(4.5km)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제초작업은 동덕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선문로(홍익아파트~선문대정문), 삼성로(명암10리~동덕사거리) 구간 잡초 및 관목제거를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과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통한 사고예방,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충청유교문화원 논산을 품다

19일 충청유교문화원 기공식 열려... 유교문화연구의 중추역할 기대



부여 공남지에 야간경관 펼쳐진다

서동연꽃축제 분위기 조성 야간경관점등 퍼레이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제17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개막 이전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야간경관 점등식을 겸한 축하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야간경관 점등 퍼레이드는 부여 군민 200여명의 축제깃발 기수단으로 구성된 부여서동연꽃축제 축하행렬단이 부여군청 앞 광장에서 출발하여 공남지 동문주차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친다.

부여군은 올해 공남지의 아름다운 연꽃을 표현한 2.5m 규모의 대형연꽃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많은 빛의 향연이 기다리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공남지 연지 둘레길을 따라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를 바탕으로 특징적이고 차별화된 아름다운 빛의 조각들이 공남지 일대를 수놓아 한여름밤 공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서 '공남지 사랑, 연꽃의 빛을 밝히다!' 라는 주제로 오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개최된 후 7월 매주말 부여서동공원(공남지)에서 개최된다.

축제기간 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7월 5일 충남교향악단과 팡파라 가수 박완과 유성녀의 개막 초창 식전공연에 이어 신나는 락밴크 '슈퍼맨'으로 유명한 노라조와 인기 트롯 가수 설하운 등 가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천화일화 연꽃만타쇼, ▲ICT연꽃주제관, ▲세계나라 연꽃영상쇼, ▲연꽃수박화채만들기, ▲채널영 셰프의 팔도유랑 푸드luckin 부여서동연꽃축제 ▲연꽃전망대 및 그늘막 설치, ▲공남지 연지 카누체험 등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눈에 띄는 논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2019 북경국제관광박람회에서 논산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의 장이 펼쳐졌다. 시는 선사인랜드와 딸기, 돈암서원, 탐정호 등 논산이 가진 색다른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서천군 여름철 한우 특별교육

농업기술센터, 농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총 10회 진행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가 지역 한우농가의 전문성 강화와 축산환경 개선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2019년 여름철 한우 특별교육'을 추진에 나선다.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40명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주 2회 총 10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강의실, 농가현장 등에서 진행된다.

최신 한우 사육기술과 번식농가의 1년 1산 기술, 질병 없는 건강한 송아지 기르기, 축산물 공판장 경매 전문가의 출하전략 등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와 한우 명인 초청 우수사례 발표, 한우 마이스터 농장 견학 등 송아지 생산에서 출하까지 농가가 꼭 알아야 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을 위해 냄새 없는 축사 환경 관리와 가축분뇨 자원화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축산기술팀 041-950-6646)를 통해 가능하다.

기호유학의 본거지 논산에 유교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꽃 피울 초석이 세워졌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9일 노성면 병사리에서 '충청유교문화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기공식에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정·관계 및 문화계 주요 인사들과 종중 및 지역유림, 지역단체, 시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한 마음으로 유교문화원의 건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유교문화원은 사업규모 46,721㎡, 건축연면적 4,927㎡ 규모로 세워지는 충청유교문화원 종합개발사업의 연구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유교문화 자료 수집 및 보관은 물론 정신문화 교육 등을 통한 유교문화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라키비움(Lachivium)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유교사상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연구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친근하게 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문화체협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충남·북과 대전·세종에 산재한 유교 관련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와 소중한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며,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아우르는 지역의 랜드마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유교문화원이 뿌리내린 논산은 사계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 우암 송시열 등 조선 후기 최고

의 유학자들을 배출한 기호유학의 중심지로,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기관인 서원과 향교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논산에 위치한 돈암서원은 김장생을 제향한 서원 중 가장 비종있고 영향력이 있어 호서는 물론 기호 전체에서 존송받는 서원으로 오는 7월 영주 소수서원, 안동 병산서원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유교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충청유교문화원이 건립

되면서 돈암서원과 함께 선비문화의 중심, 기호유학의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교문화 관광자원 형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청유교문화원은 기호유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시킬 토대가 될 것"이라며, "충청유교문화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유교문화의 정신이 충남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유교문화는 우리가 역사적·문화적 바탕으로 반드시 지키고 개발해 나가야 할 고유한 유산"이라며,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더불어 기호유학연구의 핵심으로 그 명성을 꽃피울 유교문화원을 논산에 품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선조들의 학문 정신과 사람 사는 도리를 실천하고자 했던 마음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유교문화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논산=김태선기자

통
통합돌봄 출범식



구본영 천안시장은 20일 오전 9시 30분 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출범식에 참석.

정례회



황명선 논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

생활체육대회 개최식



노박래 서천군수는 20일 오전 10시 마서면 송석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해양스레기 정화 주간 대청소'에 참석. 오후 6시 예산운봉길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 충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부여군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1,305건 22억53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차량인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는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환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까지 읍·면 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이용할 수 있다.

계룡시 '화장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계룡시는 선진 장사문화 확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관내 화장장이 없어 지역민들이 대전, 광주 등 타 지역 화장장으로 이동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망자의 유족이나 전입자 등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있어 각 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시 화장장려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인근 화장장 등에 제도를 홍보하고 소식지, SNS, 주민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장장려금은 사망일 12개월 이전부터 계룡에 주민등록된 사망자를 화장할 경우 유족에게 1만원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한다.

또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한 경우 유류 1구 당 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신고 및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지원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동남구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나선다

올해 8곳 가운데 5곳 동남구에 설치... 지역편차 해소



천안시가 서북구 지역에 편중된 어린이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육 선택권에서 소외된 동남구 지역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8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5곳

을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동남구에 242개, 서북구에 424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이 가운데 개발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서북구 지역을 중심

으로 한 7개 동지역에 60% 이상이 밀려있어 먼 지역 가운데 동남구 지역 어린이들의 보육 선택권이 불리한 상황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0억4000만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8곳을 확충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5곳을 동남구 지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북구 지역에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법에 의한 의무에 따라 불당세액, 불당행복, 쌍용하늘채 등 3곳이 설치되고, 동남구 지역에는 청담다솜, 청담아이, 일봉, 이슬, 한빛 등 5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된다.

이 외에도 시는 동남구 지역 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해 동남구 원도심권에 추진 중인 문성과 원성 지역 재개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주택법 제49조)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이 대거 건립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에서 의무 어린이집을 설치 대상에 대해 조사를 벌여 동남구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앞으로 더욱 늘릴 예정이다.

강북옥 여성가족과장은 "서북구 지역의 인구편중 현상과 연령대별 거주 밀집현상으로 인해 동남구가 상대적으로 보육수요 격차에서 크게 떨어져 선택권에서 소외된 경향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남구 지역에 어린이집 추가 설치와 맞춤형 보육시스템 제도 확대 등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기산면 화산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7월부터 본격 측량 돌입... 올해 안에 경계 확정 지을 것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기산면 화산지구 372필지(218,408㎡)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등록된 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위성(GPS) 측량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지난 3월 30일 충청

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된 기산면 화산지구에 대해 지난달 27일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천지사를 사업 측량·조사 수행자로 최종 선정했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측량에 돌입하고 올해 안에 경계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2019년도 화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 이용 가치 상승 및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계룡대와 함께하는 상반기 '정책협의회' 열려

계룡대 내 계룡의 명소개방 협조 등 9건 협의



계룡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홍록 시장을 비롯한 계룡대군무

지원단장, 시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시는 계룡대 내 계룡의 명소개방 협조, 2019 계룡세계군문화축제 개최지원 등 4건을 상정했으며, 계룡대는 영의테니스장 시설개선, 공군기상단~계룡대 병영체험장 간 두계천 징검다리 설치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상정된 9건의 안건을 적극 시행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제안들에 대해 적극 정책 및 시민이 공감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홍록 시장은 "계룡대군무지원단에서 시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계룡시정 정책협의회가 시정 현안을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해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정

제7대 공주대학교 총장 취임식



김정섭 공주시장은 20일 오전 11시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제7대 공주대학교 총장 취임식에 참석한다.

목요 간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은 20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 간부회의, 오전 11시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지방재정 예산안 심의회의 의 위촉, 오후 6시 예산안에서 열리는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식 참석.

제7회 바다기꾸기 사업



맹정호 서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삼길포에서 열리는 제7회 바다기꾸기 사업에 참석, 오후 3시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단 밭대식에 참석, 오후 7시 30분 덕산 리스승과개솔에서 열리는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

제13기 한방건강대학서 특강



문정우 금산군수는 20일 오후 1시 다락원서 열리는 제13기 한방건강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제7대 공주대총장 취임식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일 오전 11시 백제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7대 공주대총장 취임식'과 오후 2시 공주공성고에서 열리는 '운동장 및 다목적강당 개관식'에 참석하고 오후 6시 30분 경북공예단컨벤션에서 열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뉴공주 LC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공주시 하반기 읍·면·동 순방

김정섭 공주시장이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16개 읍면동 순방에 나선다. 최인중 행정지원과장은 19일 정래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7월 4일 정인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진행되며, 예년과 달리 현장방문 및 환담 등은 생략하고 시민과의 대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사전에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각 지역 주민들이 평소 갖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농호회의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이 직접 선정한 사회자가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숙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연두순방 당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던 포스트잇을 활용한 건의 방식도 이번 하반기 순방에도 적용해 좀 더 많은 시민의 건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중 행정지원과장은 "순방 시 수렴되는 주민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민원 처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관리카드화해 공문 발송 및 전화 안내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포슬포슬한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 개최

22·23일 양일간 감자 캐기 체험...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제18회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가 오는 22-23일 이틀간 팔봉면 양갑리 일원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팔봉산감자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감자캐기체험과 감자요리 시식, 감자관련 기념품, 농특산물 즉석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감자캐기 체험은 올해에도 1인당 7000원~1만3000원의 참가비만 내면 5~10kg의 씨알 굵은 감자를 직접 캐 갈 수 있다. 또 축제기간 동안 산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감자, 마늘, 양파, 서산한우 등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된다.



다특히 농특산물 판매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감자캐기 신청은 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otofestival) 또는 전화(041-660-3793)로 예약하면 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정식 추진위원장은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며 "가족과 함께 오셔서 포슬포슬한 팔봉산 감자도 맛보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갯바람을 맞고 자라 수분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함량이 높고 껍질이 얇아 포슬포슬한 맛이 특징인 팔봉산 감자는 팔봉산 주변 430농가가 230여ha의 밭에서 연간 9500t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지리적 표시와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각각 등록됐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한국인민연합회 주관 코리아 탑 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 감자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청 중앙홀, 시민 중심 열린 공간으로 새 단장

시민 누구나 즐기고 소통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탈바꿈

공주시청 중앙홀이 시민 누구나 찾아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현재 문화재복제품과 뿔잔배 모형의 조형물 등이 전시돼 있는 시청 중앙홀을 민원 안내데스크와 북 카페, 갤러리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공주시청 중앙홀은 지난 1991년 시청사 준공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시청 로비가 답답하고 어두워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오며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전시돼 있던 무명왕 흉상과 문화재 복제품을 벽면 한쪽에 재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도 갖출 방침이다. 이성열 회계과장은 "새롭게 단장되는 시청사 중앙홀은 시민들이 수시로 찾아 가벼운 차 한 잔과 함께 자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해 8월 초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 한국중부발전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꿈꾼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기대



보령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스마트 축산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사업은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축산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최적의 기온, 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환경오염 제어, 가족 질 병 예방 및 조기발견에 기여하기

340만 원을 들여 영농조합법인 5호 이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봇착유기, 자동 급이기, 발정 탐지기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구입과 CCTV, 유로센, 풀링패드, 악취저감 시스템 등 축사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시스템 구축이다. 박형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령화와 FTA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농어촌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축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축산관리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는 소득증대,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산군은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만1903건 22억 8638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재무과(041-750-2425)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주영기기자

공주시, 건축사·토목설계사무소장과의 간담회

개발관련 인허가 능동적 처리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7일 중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무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섭 시장을 비롯해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개발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의 애로사항인 도시계획심이나 경관심의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진 협의와 단순 검토를 위한 협의의 처리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모색됐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협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업무처리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민 편의와 공주시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시와 설계사무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시 발로 뛰는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 '호응'

서산시(시장 맹정호)에서 운영 중인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가 시민불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는 지역 내 주요 도로에 대해 민관이 함께 순찰을 실시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서산시의 4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는 매월 11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순찰하며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불법광고물 제거, 적체쓰레기 수거 등 각종 생활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반복되거나,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행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관 합동 가로순찰대에서는 도시정비 886건, 환경 분야 59건, 도로 분야 48건, 교통시설물 42건 등 총 1,039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산=김정환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상미(이채영 분)는 가족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급회(이영은 분)는 준호(김시권 분)의 동창 이라던 현석이 여자라는 걸 알고 준호의 뒤를 쫓는다. 한편 금주(나혜미 분)는 자신이 석호(김산호 분)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는데...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30분)

하루아침에 사라진 제니. 수진은 부하들을 통해 제니의 서울행 소식을 듣고, 제니를 잡아 오라고 명령한다. 한편, 은지를 통해 제니의 소식을 듣게 된

은석 역시 제니를 만나기 위해 공황으로 달려간다. 제니를 잡으려는 수진의 부하들과 제니를 구하려는 은석,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제니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황을 가득 채우는데...

▲절대그이 (SBS 오후 10시00분)



다시 만난 영구와 다다는 서로가 있어 행복하기만 하다. 한편 영구에게 분노한 다이애나는 가드들을 대동해 다디의 집으로 찾아오고 영구를 힘으로 제압해 데려가려 하는데... 우연한 기회로 닥터 알과 고2의 스텐트맨으로 일하게 된 영구. 첫 촬영을 앞두고 왕준과의 신경전을 벌인다. 그러던 중 왕준에게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급기야 왕준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한다.

케이블 영화

▲골든슬럼버 (OCN 오후 7시10분)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착하고 성실한 택배기사 '건우' (강동원). 최근 모범시인으로 선정되어 유명세를 탄 그에게 고등학교 시절 친구 '무열' (윤계상)로부터 연락이 온다.

오랜만에 재회한 반가움도 잠시, 그들 눈앞에서 유력 대선후보가 폭탄 테러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당황한 건우에게 무열은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며, 건우를 암살범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자폭시키는 게 조작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겨우 현장에서 도망치지만 순식간에 암살자로 지목되어 공개 수배된 건우.

CCTV, 지문, 목격자까지 완벽히 조작된 상황. 무열이 남긴 명함 속 인물, 전직 요원인 '민재' (김의성)를 찾은 건우는 그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알게 된다.

살아 남기 위해, 그리고 누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는 건우.

하지만 자신이 도망칠수록 오랜 친구인 '동규' (김대명), '금철' (김성균), '선영' (한호주)마저 위협에 빠지게 되는데...



▲머니백 (채널CGV 오후 8시30분)

반드시 돈가방이 필요한 7명이 꼬이고 엮였다!

가진 거라고는 몸통이뿐인 '민재' (김무열)는 엄마 수술비를 위해 보증금까지 털었지만,

이마저도 '양아치' (김민교)에게 모두 뺏기고 만다.

'양아치'는 사채업자 '백사장' (임원희)에게 뺏은 돈을 바치고, 이 돈은 고스란히 선거를 앞둔 '문의원' (전광림)에게 들어간다.

계속되는 적자 인생에 '백사장'은 '킬러' (이경영)를 고용해서 '문의원'을 처리할 계획을 세운다.

'백사장'은 도박장에서 저당 잡은 '최형사' (박희순)의 총을 '킬러'에게 배달하지만,

'택배기사' (오정세)가 실수로 '킬러'의 옆집 '민재'에게 맡기는데...

헛고! 달리고! 쫓기는 '머니백' 레이스가 시작된다!

단 하나의 범죄 오락은 머니머니해도 <머니백> 꼬이고 엮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측불가 전개!

영화 <머니백>은 돈가방 하나에 엮인 7명의 예측불가 추격전을 다룬 범죄 오락 영화.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대전시티즌,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 김세운·이지솔 팬사인회



대전시티즌이 남자 U-20 대표팀 소속으로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일군 김세운, 이지솔 선수와 팬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한다.

대전시티즌이 남자 U-20 대표팀 소속

대전시티즌이 남자 U-20 대표팀 소속으로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일군 김세운, 이지솔 선수와 팬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한다. 팬과의 만남은 6월 23일 일요일 오후 17:30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 운동장이 거리스카이 로드에서 열린다. 레크레이션, 팬 사인회 등을

통해 팬들이 두 선수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첫 팬과의 만남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경기장 및 대전 시내 곳곳에서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김다정 가야금병창

독주회 연다



김다정 가야금병창 독주회가 충청남도 문화재단 후원으로 오는 22일 오후 5시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국립전통예술고를 거쳐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부에서 가야금병창을 전공한 김다정은 전주 대사놀이 전국대회에서 장원을 수상한 바 있는 검증된 실력의 국악연주자이다. 각종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다른 열정과 실력으로 가야금병창의 진정한 맛을 알리는 데에 큰 공헌을 하고 있고, [민속악단 새별, 논산전통국악연구소, 큰덕어울국악단,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락], 가야금양상봉 금지사의 동인으로 민속음악부터 창작음악까지 다양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공연은 김다정이 마련한 첫번째 독주회로, 가야금병창 순수 전통의 맛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소리꾼이 판소리를 부르기 전 목을 풀기위해서 부른다는 가야금병창 단가로 시작해 가야금병창 창 판소리 다섯바탕의 눈대목들을 차례로 노래한다.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는 만큼 살례기도 하면서 펼치는 김다정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가야금병창 독주회로 성심을 다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 관객들에게 가야금병창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가족연극 부부이야기 '당신만이' 공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부 이야기를 귀에 익은 음

오는 21일과 22일 양일 간 아산시평생학습관 공연장 무대

악과 현실적인 대화로 풀어내는 대사로 가족 연극 뮤지컬 '당신만이' 공연이 오는 21일과 22일 양일 간 아산시평생학습관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2019년 아산문화재단 브랜드 공연 첫 작품 '당신만이'는 아산시가 주최하고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도모컴퍼니와 극단 오늘이 제작했다.

'당신만이'는 37년을 동반자로 살아온 경상도 부부의 인생여정을 옴니버스식으로 담아낸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족 연극

으로 2017 한류 문화대상 연극/뮤지컬 부문 대중문화 대상과 클린 콘텐츠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1만5천원이며, 3인~5인 가족단위 관객객들은 1인 1만2천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아산문화재단 브랜드 공연 '당신만이'에는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fac.or.kr)를 통해 객석을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으며,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문화재단 (041-534-26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산=리랑기자

당진정보고,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당진정보고등학교는 지난 15일부터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2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고 등부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의 중·고등부 총 109개 팀, 배드민턴 유망부 848명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정보고 배드민턴부는 16강에서 강호 진광고에 3-2 승리를 거두고 8강에서 협회장기, 불철 종별선수권 두 대회 연속 결승에서 만났던 패권을 만나 3-1로 승리하며 지난 두 번의 결승전 패배를 설욕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김천 생명과학고에

승을 확정 지었다. 당진정보고 배드민턴부는 2010년 전국체육대회 이후 9년 만에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여름철 종별 선수권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32년 만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시청 양궁팀,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 · 동 획득 공주시(시장 김정선) 남자 양궁팀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충북 보은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 혼성전 동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주시청 양궁팀 소속 박규석, 민태홍, 이우주 선수는 단체전에 출전해 4강전에서 계양군청을 5대 4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청주시청에 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퍼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Table with columns for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교육청에 어린이 잡지 600부 기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9일 NH농협은행 충남본부로부터 어린이 교양 월간지 '어린이 동산' 600부 정기구독권을 기증받았다.



충남도, 롯데마트 농산물 유통상생협력 협약 충남도와 롯데마트가 지역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양측은 충남지사 및 문영표 롯데마트대표이사는 19일 롯데마트서울역지점에서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롯데마트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산인자면, 자매도시와 마늘캐기 봉사활동 실시 인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영근)에서는 지난 18일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2동 주민자치위원회, 동탄2동사무소 직원, 인자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0명이 참석해 산동리 6쪽마늘 밭에서 "서산6쪽마늘 캐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주시 정인면 '제3회 초록빛 작은음악회' 개최 공주시정인면면장이(은상) 주민주치위원회는 최근 정인면민과 함께하는 제3회 초록빛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종충남, 보이스포싱 예방 가드캠페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충남지역본부(본부장 정인순)는 19일 서대전새마을금고 대전중부경찰서와 보이스포싱 피해예방을 위한 가드캠페인을 실시했다. 고객 자산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서대전네거리역, 서대전공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리플렛, 부채 등 각종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보이스포싱 예방을 적극 홍보했다.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위, 6월회의 개최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만선)는 지난 18일 주민자치센터에서 6월 정례회의를 갖고 2019년 상반기 운영사업을 점검했다. 하반기에는 주민세 활용 지역특색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마케팅공사, 임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실시

'도시마케팅 및 교통안전체험 교육'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는 오는 6월 18일(화) 14시부터 18시까지 교통문화연수원 중앙당 및 체험실에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2019 도시마케팅 및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개최한 '2019년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에서 선정된 사업 중 하나이며, 공사의 미래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신규 과제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부합되는 교육을 개설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전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 등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대전학' 강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

고사례 및 교통법규, 심폐소생술 등 교통안전체험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올해 적극적인 관광 마

케팅 전략 수립, 공사 주요사업의 전문성과 대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 등 특화된 교육을 연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은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사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마케팅공사 최철규 사장은 "도시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공사 직원 대상으로 대전의 역사 및 관광과 교통안전체험교육 등을 통해 대전 홍보 및 안전지킴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공주대, 제7대 총장 원성수

박사 취임식 20일 개최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20일 오전 11시 백제교육문화관 1층 컨

벤션홀에서 공주대학교 제7대 총장 원성수 박사 취임식 행사를 개최한다.

취임식 행사는 주요 내외빈과 교직원, 동문 및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약력소개, 꽃다발증정, 취임사, 축사, 축가,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7대 총장 원성수 박사는 1963년생으로 충남 공주시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e University of Akron에서 행정학 석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 3월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성수 총장은 지난 20년 간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후학 양성에 집중했으며, 재능을 인정받은 전임 총장의 선택으로 대학의 보직자로서 홍보실장과 대외협력본부장직을 맡았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미래장학기금조성 업무협약

(주)맥키스컴퍼니, (재)아산시미래장학회에 기부

아산시의 (주)맥키스컴퍼니가 지난 18일, 시 상향실에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맥키스컴퍼니는 앞으로 10년동안 아산시에서 판매되는 '이제 우린 소주 1병에 5원씩 적립해 (재)아산시미래장학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기부는 년 1회(익년 2월)전년도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적립금액을 산출하고 협약기간은 2019년 6월 1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조용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맥키스컴퍼니의 사

업 방향이며 장학금 출연이 지역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충청권 대표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조용래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는 대전·충남·세종시 등 기초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랑 장학재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출품영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서산문화복지센터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부제목:]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유튜버 공모전에서 청소년영상제작동아리 B.C.C의 출품 영상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영상제작동아리 B.C.C의 영상은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키워주며 탁월한

홍보성과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김영제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서산시 청소년 활동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수련관 소속 영상제작동아리 B.C.C는 2017년 활동들 시작으로 올해는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산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한밭대 도서관, 일반회원 감사이벤트 시상 및 감사장 전달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7일 대학본부에서 '2019년 일반회원 500명 돌파 및 도서관 이용 후기 이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감사 이벤트는 그동안 한밭대학교 도서관에 일반회원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직원이 보이스포싱 피해 막아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지부장 박장순)는 지난 5월 보이스포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김서희 계장에게 당진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김서희 계장은 지난 5월 27일 낮 12시 40분경 77세의 고객 A 씨

가 입금계좌의 잔액 전액과 정가액 1천만 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 지급을 요청하자 보이스포싱 범죄임을 의심, A 씨에게 자금 인출 사유를 물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확인사항에 서명과 인감날인을 받았으나 고

객님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다시 한번 수상한 전화를 받거나 지금 통화 중이라고 물어보았으며, 고객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휴대폰 번호로 수신된 전화이며 통화시간이 50분임에 보이스포싱임을 확인했다.

검찰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해 현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음을 설명하고 보이스포싱임을 정확히 인지시켜드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서희 계장은 "고령인 고객이 거액의 현금 지급을 요청하자 보이스포싱을 직감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남대 중앙박물관 '나의 문화유산 눈이 부시게' 개최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광역시에서 후원하고, 대전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인 한남대 중앙박물관에서 가족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나의 문화유산 눈이 부시게'는 가족과 시니어를 위해 '소중한 물건'이라는 주제로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의 일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이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일상에 지친 나를 일깨우는 나눔과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다.

2개월 동안 '영상영화치료'나를 찾아서, '일상치유공간 탐방'나를 알아가는 여행, '결과전시회'미래의 우리, 우리의 미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문화예술을 만나는 태도와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또한,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 낸 결과물을 전시를 통해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정환기자



더 Hot한날!

미술관×지역축제

(사)한국사립미술협회(회장 이연수)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6월 행사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인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35개 등록 사립미술관에서 펼쳐진다.

칼럼

한국경제 장기불황, 국민대토론회를 열자



황선만 논설위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18일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보고서를 냈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이유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8일 발표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Korea: Three reasons for the BOK to ease more slowly than priced in markets)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

존 2.3%에서 2.1%로 낮추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 배경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3분기에서 4분기로 미뤄져 한국 주요 반도체 업체의 실적 전망치도 새롭게 하향 조정했다'며 "수출 부진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저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대만에 이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에 두 번째로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역대 대부분의 다른 경제 단위들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

다 크게 위축됐고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세계경제 둔화 등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면서 '하방(下方)이라는 단어를 10차례 언급했다. 이처럼 대통령 경제 참모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얼마 전까지 나왔던 '경제 낙관론이 종적을 감춘 모양새다.

경제학자들 중 한 명은 "한국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중 단기 경기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알파벳 'L'자 모양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약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27.5%였다.

경제학자들은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경제 불황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경제 불황 극복책은 정부에서 먼저

세워야 하지만, 이렇게 장기불황이 예측되는 시점에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대국민 대토론회를 가지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실제 경제상황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인 기업과 소비자 등 모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제 난국을 풀어나가려면 모든 문제를 들어내놓고 국민 합의점을 찾아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실물경제는 바닥인데 거시 경제 지표만 가지고 정부에서만 고민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모든 것을 들어내 놓고 국민 대 토론회를 거쳐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하여 여야는 물론 전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강력하게 추진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금처럼 바닥경제는 엉망인데 정부에서는 기존 정책만 고집하기 보다는 실패한 경제정책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을 것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출해 주기 바란다.

사설

노후 기반시설 점검 서둘러야

정부와 민간이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8조원씩 32조원을 투자하고 열수송관,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니 기대가 크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3792억원을 활용해 보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이나 교체도 추진한다.

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 이는 종전보다 연간 3조원가량 상향한 액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SOC)과 사고 발생 시 파급 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반이 튼실한 나라를 만드는 밑반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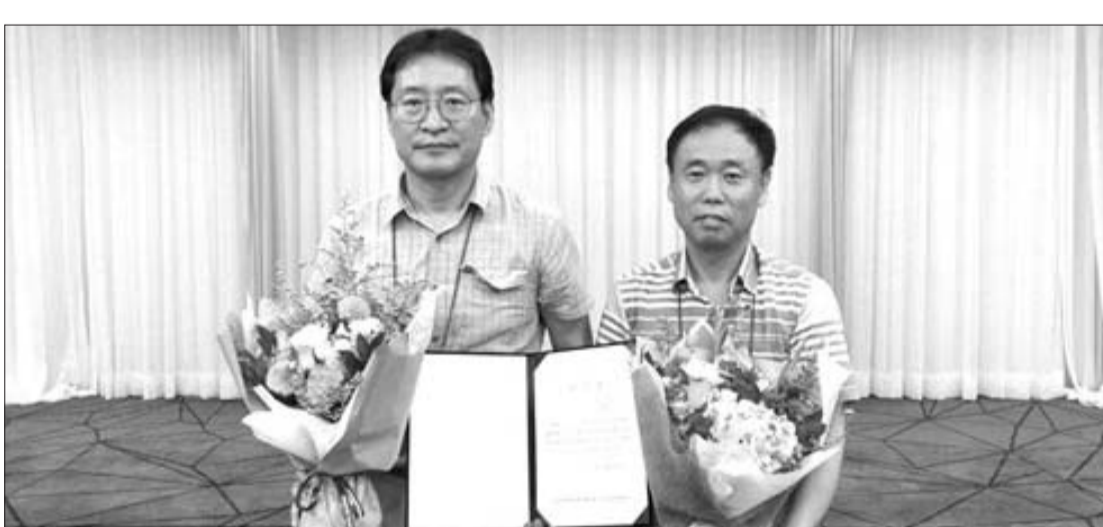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부모의 간절한 바람 외면 말아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가 발달장애인에 제공되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루 8시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대책이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하루 2시간에서 최대 5.5시간만 제공될 예정인데다, 수혜자가 전체 발달장애인 성인 15만여 명 가운데 2천500여 명으로 약 1.5%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간활동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설계돼 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 국가가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탁상공론에 그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 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가족이 뒷바라지에 매달리게 되고, 이 때문에 가정의 삶마저 황폐해지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 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갖기도 어렵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자립 역량 부족 탓에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성인이 돼도 갈 곳이 없으니 대부분이 사회와 격리된 채 온종일 집에만 머물다 보니 일상생활에서의 지원 수요가 커지면서 가족 중 누군가는 온종일 돌보고 있어야 한다. 가정의 과도한 돌봄 부담이 확대도 이어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돌보기가 버겁다 보니 겉디다 못한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한 예도 있다.

따라서 현행 주간활동 서비스 정책이 수혜자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부터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순서일 듯싶다.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각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제공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수혜자 위주의 정책이 수립돼야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될 때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국가로 나갈 수 있다.



대전공노, 제7대 위원장에 전기원 대덕구노조위원장 당선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은 지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제7대 대전연맹 임원 선거를 실시해 위원장에 전기원 대덕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사무총장에 류인규 서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전연맹 위원장 당선인 전기원씨는 현재 대덕구공무원노동조합 제5대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제7대 대전연맹은 오는 7월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대전연맹은 지난 2008년 1월 창립해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자치구 3,9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된 공무원노동조합연합체 단체다. 김태선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 칼럼

여름철 수족구병 유행...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한승범

기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매년 여름이면 유행하는 수족구병이 올해는 일찍부터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보통 무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는 6월부터 8월까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4월부터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영유아의 대표적 계절성 전염병인 수족구병에 대해 알아본다.

감염 후 가벼운 감기처럼 증상이 시작되는 수족구병은 발열 후 손, 발, 입안에 빨간 반점이 생기다가 물집이 잡힌다. 이러한 반점과 물집은 입 안에만 생기거나 손, 발과 함께 엉덩이 또는 전신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통 잠잠 크기 정도인데 가렵거나 아픈 경우는 많지 않다. 물집 모양이 수두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나 수두는 물집이 주로 몸통과 얼굴에 생긴다는 점이 다르다. 인체 장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바이러스가 분변, 경구 또는 호흡기 경로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퍼진다.

수족구병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생활을 하는 10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다. 전염성이 강해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검사를 수업을 정도로 번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첫 증상이 나타난 후 구강 병변이 사라질 때까지 단체 활동에서 제외할 것이 권장된다.

수족구병은 일반적인 감기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특별한 치료법이나 예방접종 백신이 없다. 한번 감염되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만, 다른 혈청형에 의해 감염되면 다시 수족구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

치료는 열이나 두통, 입안의 수포와 궤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증상 치료를 하게 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물집이 생긴 부위를 깨끗이 하면서 3~7일 정도 지내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안의 수포와 궤양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속 늘어지고 탈수증상이 오기 쉬우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보리차 등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고형식보다는 유동식으로 식사를 하며 음식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도록 해야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설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아이스크림 같은 시원한 음식이라도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 다만, 드물게 뇌염, 뇌수막염 및 심근염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되거나 3일 이상 열이 지속되는 경우, 보편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이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기저귀를 갈은 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난감은 물론 자주 행구고 아이가 입에 넣었거나 침을 문힌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지 않게 주의한다.

수족구병은 일주일 이내에 상태가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드물게는 뇌수막염이나 심근염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앞으로 무더위가 더욱 본격화되는 만큼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김동일 시장, 보령발전본부 직원대상 '적극행정' 특강

불법 개선 등 시 적극행정 사례 안내... 내 고장 주소 갖기 등 사생 요청도



"적극행정 보령 특별시를 표방한 우리 보령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무엇보다도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정행위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19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극행정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서 "지난 2014년 민선 6기 세계 보령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시가지 교

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상 주차장을 도입한 것인데, 누군가는 정치인으로서 왜 표를 끌어먹는 행정을 펼치냐고 걱정도 하셨다"라며, "하지만 이는 결국 역세권에 주차난 해소, 주차 순환율 향상에 따른 교통질서 확립 등의 성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또한 "수십 년간 여름철만 되면 전매, 상속, 과다경쟁 등의 폐해가 발생한 계절영업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추첨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공유수면의 사유화를 막아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주고, 관광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놀이 용품을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철 약 20여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한 천북골단지는 수십 년간 상인들이 국·공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조성·영업해오고 있어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폭신 있는 행정으로 지난해 연말 수산식품거점단지로 탈바꿈했다"며, "이는 정당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개입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령발전본부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청년창업 및 교육발전 지원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령에 거주하면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사회공헌 분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령=김정희 기자

Paco de Lucía 헌정음악회

스페인인의 추억

플라멩코

바르셀로나 기타 트리오 & 댄스

본능을 자극하는

기타리듬과 춤

플라멩코의 모든 것



Barcelona Guitar Trio & Dance

2019. 7. 10 WED 7:30 PM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티켓 | VIP가 70,000원 | B가 40,000원 | 상가 30,000원 | A가 20,000원 | 예매 | ☎ 042-829-1144-1155 (대전) 042-829-1144-1155 (부산) 042-829-1144-1155 (서울)

주최 | [BravoCom](http://www.bravo.com) | 후원 | 042-829-1144-1155 www.bravo.com